1. 종교다원주의 배격
1. 동성애 반대
1. 차별금지법 반대
1. 자유민주주의 수호

제1203호
7월 30일
2022년
토요일

牧羊新聞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농협 301-0153-7296-01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문의 02)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서울 다-07857 주간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드시 막아야

2022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 개최

1부 연합예배 및 기도회에서 대표기도하는 총회장 신재영 목사

2022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이하 국민대회, 대회장 유만석 목사)가 지난 7월 16일(土) 서울시의회 앞 도로 일대에서 열려 주최 측 추산 약 10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같은 시간에 서울광장에서 열린 퀴어축제에 반대해 열린 국민대회는 전국에서 모인 국민들로 도로를 가득 메운 가운데 서울시청 앞 일대를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열기로 후끈 달아오르게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와 동성결혼합법화를 반대한다고 외쳤다. 또한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비판을 금지하면서, 양심·신앙·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며 한국교회와 국민들이 동성애를 근절하고, 생명의 가치관 수호에 앞장서, 가정 질서와 다음세대들을 동성애로부터 지켜내야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국민대회는 식전공연, 1부 연합예배 및 기도회, 2부 개회식, 3부 국민대회(1), 4부 거리행진인 러플 퍼레이드·국민대회(2) 순서로 개최되었다.

1부 예배 및 기도회는 박한수 목사(제자광성교회)의 인도로 시작되어 신재영 목사(경북기독교총연합회 직전회장, 예하성 총회장)가 기도하고, 서승원 목사(합동보수 총무)의 성경봉독, 정성진 목사(크로스로드 이사장)의 설교, 김요셉 목사(한교연 초대 대표회장)의 축도 순으로 드려졌다.

신재영 목사는 "동성애퀴어축제를 통해 파급될 불편부당한 일들을 막아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 기도하오니 나라를 패망으로 몰고 가는 악법인 평등법, 동성애법,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막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하고 간절히 기도했다.

이어 정성진 목사는 창 19:1~7, 24~25 말씀을 본문으로 '왜 소돔이 되려 하는가'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남녀 외의 제3의 성은 창조에 대한 도전이다. 그 결과는 에이즈의 창궐이요 인간 세상의 파멸을 자초한다"며 가정이 파괴되고, 무질서하고 부도덕한 사회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심하보 목사(은평제일교회), 이상민 목사(대구서문교회), 김봉준 목사(아홉길사랑교회), 박경배 목사(송촌장로교회)가 각각 동성애 퀴어축제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건강한 대한민국, 한국교회 수호를 위해서 합심기도를 인도했다.

2부 개회식에서는 홍호수 사무총장(청소년 중독예방운동본부)의 사회로 국민의례, 대회사, 인사말, 차금법 반대역사, 격려사, 개회선언, 공연, 3부 국민대회는 국민대회 전문위원장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의 사회로 각계 전문가의 발언과 지역별 대표자들이 발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회장 유만석 목사는 대회사를 통해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혐오해서 폭력적으로 대응하고자 모이는 것이 아니다. 이들도 죄에서 돌이켜야 할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내로 돌이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강조했다.

길원평 한동대 교수(진평연 운영위원장)는 "이번에 가을 정기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은 차별금지법을 막는 유일한 국가가 되길 바란다"고 전하고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조례인 서울학생인권조례를 없애고자, 우리 서울시민이 꼭 폐지 서명에 참여하자"고 당부했다.

임영문 목사((사) 전기총연 이사장)는 "이런 동성애 퀴어축제 행위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행위로, 다음세대를 파괴하는 더러운 행위이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고 있다. 복된 자유대한민국과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동성애 퀴어축제가 개최되지 못하도록 반드시 목소리를 내자"고 했다.

행사 이후 4부 거리행진 러플 퍼레이드는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도 숭례문에서 서울시청, 대한문까지 퍼레이드를 이어갔다.

푸른초장 맑은시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

조용목 목사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빌 3:18~21)

누군가를 위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는 것은 심히 애타하며 진정을 다하여 간곡하게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가 애타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거듭거듭 말하게 된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과 그들의 삶의 특징과 결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십자가'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말합니다.

첫째는, 율법주의자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주의란 의롭게 되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달리 말하여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이 기록된 빌립보서 3장 2절에 율법주의자들을 가리켜 '개들' '행악하는 자들' '손 할례당'이라는 과격한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을 '삼가라'는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하여서 엄중하게 경계 명령을 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바울 당시처럼 율법주의자들의 교훈이 끊임없이 교회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는 사람들,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에 기록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롬 3:23,24)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죄인이 아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종교적인 행위와 선한 행위로 의인이 되었다."라고 주장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규정하는 엄청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대속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행위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외에는 영생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요일 5:11,12) 그런데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익명의 그리스도'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생활 특징과 그 결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은 육신의 욕망을 성취할 수 있다면 복음을 왜곡되게 말하는 것이 예사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수치가 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세상에서 유익이 된다면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영광으로 삼습니다. 이 세상일과 즐거움을 우선순위로 삼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천국에서 누릴 상급과 영광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주야로 땅의 일을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일에 골몰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의 최후 결말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멸망입니다.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과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볼 때 바울 사도처럼 눈물이 나고 애타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들을 인도하는 일에 진력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진리교회)

교단 제68차 총회 제38회 임원회

차별금지법 제정반대, 국가안보 위해 기도

예배 회복에 전력, 확진자 급증 방역 철저

신재영 목사
예하성 총회장
새김천교회 담임

교단 총회(총회장 신재영 목사) 제68차 총회 제38회 임원회가 지난 7월 21일(목) 오후 1시 새김천교회(담임 신재영 목사) 회의실에서 열려 각종 보고와 회무를 처리하고 주요내용 등을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교단 총무 이경진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회계 김견수 목사의 대표기도, 총회장 신재영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신 목사는 삼하 2:26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우리 기독교인들은 누군가에게 갖고 있는 미운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용서와 사랑, 화합의 길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신다"고 전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설교 후 임원들은 '각종 평등법, 차별금지법 제정반대를 위해', '코로나 위기 극복과 예배회복을 위해', '국가안보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한 후 부총회장 정의섭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곧바로 이어진 임원회는 재무 한순남 목사의 개회기도 후 총회장 신재영 목사 주재로 서기 정영진 목사의 회원점명, 의장 신재영 목사의 개회선언, 총무보고사항이 이어졌다.

보고사항으로 군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가 주관한 군부대 위문에 교단 총회장 신재영 목사를 비롯 직전총회장 임웅재 목사, 부총회장 정의섭 목사, 총무 이경진 목사, 부흥사회장 김기진 목사, 임형순 목사, 오세준 목사 등이 지난 7월 14일(목) 육군 3군단과 12사단 향로봉을 방문하여 무더위에도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 격려하고 위문품을 전달했음을 전했다.

이어 재무 한순남 목사의 수입보고, 회계 김견수 목사의 지출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결의 및 안건토의 사항으로 교회가입 청원, 교역자가입 청원, 교회전출입 청원, 교회명칭 변경 보고, 교회주소변경 보고, 교역자은퇴 보고 등이 결의 및 보고되었다.

이어 일산지방회 목회자의 소명 건에 대해 다루고 합리적인 결과를 위해 의견을 청취하고 행여나 불편부당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확인하여 본인의 의지를 묻고 교단 헌법에 의해 치리하게 된 결과 탈퇴 처리했으며, 감염병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어 있는 상황에 다시 확산속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다시 교회별 방역을 강화하여 교회 발 감염 소식이 극소화 될 수 있도록 방역과 관련하여서는 더욱 세밀하게 살펴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오는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인 교단 제69차 총회는 확진자가 최근 급증함에 따라 방역당국의 발표와 조치를 면밀하게 살펴보기로 했다.

'개정 사학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기독사학들, "헌법소원 결론 날때까지 교원 임용권 한시적 보존 위해"

기독교 사립학교들이 연합한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 이하 사학미션)가 '개정 사립학교법'의 '필기시험 위탁' 조항에 대해, 19일 법원에 '효력정기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18일 밝혔다.

가처분 신청 대상 조항은 제53조의2 제11항으로 교원의 신규 채용시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하고, 필기시험은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학미션에 따르면 이번 가처분 신청은, 기독사학들이 지난 3월 개정 사학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그 결론이 날 때까지 학교의 교원 임용권을 한시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학미션 사무총장 함승수 교수(숭실대)는 "교육감이 실시한 1차 필기시험을 통과한 사람 중에 사학의 건학이념에 맞지 않거나 오히려 건학이념에 적대적인 사람만 있는 경우, 학교법인은 교원을 신규 임용할 수 없고 혹시라도 건학이념에 맞지 않는 교원이 선발된 경우에는 사립학교의 운영이 중대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헌법소원의 선고시까지 사실상 기독교학교의 교원 임용권이 제한되어 있어 당장 2023학년도의 교원 임용조차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했다.

사학미션과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류영모 목사)은 오는 8월 4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배재학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의 정상화 및 기독사학의 자율성 보장'을 촉구하는 '한국교회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기보협, 창립 42주년 감사예배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해 더욱 힘쓰겠다" 다짐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대표회장 박영호 목사/이하 한기보협)는 지난 7월 15일 오전 11시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소재 동협의회 본부 비전센터에서 42개 회원교단 대표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기보협 창립 42주년 기념감사예배를 드렸다.

1부 예배는 사무총장 김준희 목사의 사회로, 신한철 목사(증경상임회장)의 기도, 김준희 목사의 성경봉독, 한지은 전도사의 특별찬양, 박영호 목사(대표회장)의 엡 4:4~6 말씀을 본문으로 한 '한기보협의 역사와 신학'이란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김신애 목사(언약신약원)의 봉헌찬양, 박한산 목사(에녹총회)의 봉헌기도 후 제2부 축하예배는 김천기 목사(상임회장)의 사회로 박영호 목사(대표회장)의 창립연혁 소개, 이길호 전도사의 기쁨찬양, 한치호 목사(새일꾼선교회)의 시 낭독, 정명구 목사(오순절성회)의 축사, 김혜자 목사(들로스총회)의 기도, 남성운 목사(증경대표회장)의 격려사, 정순정 목사(구속사총회)의 찬양, 양은총 목사(세계선교회)의 말씀, 김사라 목사(제자총회)의 기도, 박영호 목사(대표회장)의 인사말, 김준희 목사(사무총장)의 광고, 김태호 목사(합동보수)의 축도로 마쳤다.

박영호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한기보협은 정통 보수신앙을 지향하며 진리를 거스르고 성경을 왜곡하고 말씀을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80년 1월 10일에 예장고신, 예장대신, 침례교, 그리스도의교회, 나사렛성결회 등 7개 교단이 회원이 되어 설립되었다"며, "오늘날 존재하는 보수신학의 다양한 사상 중에서 참으로 성경적이고 보수적인 신학사상을 찾아내고 확인하여 그것을 한국교회와 회원교단이 걸어가야 할 바른 신학과 신앙의 길을 제시하는데 목적과 사명이 있다."고 말했다.

한장총, 제14회 한국장로교의 날 개최

한국장로교의 시대적 사명과 비전 공유

110년 동안 성장해 온 한국장로교회의 역사를 회고하고 전통을 계승하기 위한 제14회 한국장로교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한국장로교총연합(대표회장 한영훈 목사/이하 한장총)은 지난 7월 7일 서울한영대학교 7층 대강당에서 제14회 한국장로교의날 기념식을 갖고 예배와 선교 사명의 회복을 다짐했다.

한국장로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장로교단 안팎의 인사들은 물론 대통령 시민사회수석과 국회의원, 서울시 관계자 등이 함께 하여 장로교의 축제를 축하했다.

1부'기념예배'와 2부 '기념식'으로 진행된 행사에서 준비위원장 정서영 목사는 환영사를 통해 "한장총 26개 회원교단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장로교회가 한 뿌리에서 난 것을 확인하고 연합과 일치를 위해 한마음이 되었다"면서 "한국장로교의 날 기념식을 통해 참된 생명의 길을 걷는 한국장로교회의 시대적 사명과 비전을 공유하고, 힘과 뜻을 모으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을 통해 전한 축사에서 "한국 장로교회가 110년의 역사를 갖게 되고 장로교회의 날을 개최하게 돼 축하한다"면서 "한국 장로교회는 코로나에서도 복음화와 지혜를 전하고 국민들에 위로를 전했다.

한성연, 제13회 임원 부부수련회

회원교단 상호친목과 결속 다져

한국성결교회연합회(한성연, 대표회장 신현파 목사)는 6월 말에 있었던 정기총회에 이어 7월 4일부터 6일에는 여수, 남해, 통영, 거제 지역을 둘러보는 가운데 2박 3일 일정으로 제13회 임원 부부수련회를 가졌다. 기성, 나성, 예성 세 교단 임원들 부부동반으로 이뤄진 금번 수련회에는 기성 14명, 나성 11명, 예성 18명 등 총 43명이 참가하여 회원교단간 상호 친목과 결속을 다졌다.

특히 수련회 기간 중 임원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으로 교단로고 건은 기존대로 교단별 사용하되 한성연 통합로고를 사용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와 함께 농어촌교회의 레노베이션

(Renovation), 평신도기관들의 연합활동 활성화, 어린이 교재 공동사용, 강단교류 확대, 3개대학 공동입시박람회 개최, 한성연 지역 대표목회자 모임과 신앙고백서 발간은 로드맵연구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지붕 아래서의 다양성을 만들어 가자는 의견들이 있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위해서는 현재 1일 총회를 2일 총회로 검토해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편, 지난 6월 27일에 있었던 제13회 정기총회에서 조직된 각 분과별 활동에 있어서 신학분과에서는 공동예식서 발간, 대학교 연합봉사 활동, 기독교인문학 강좌, 성탄절 묵상집 제작 등의 사업을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사회복지분과에서는 11월 중 사회복지 세미나를 열기로 한 바 있다.

팬데믹 이후 선교적 첫 과제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 제9차 한인세계선교대회

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사무총장 조용중 목사)가 주최하는 제9차 한인세계선교대회가 미국 현지 시간 11일부터 14일까지 워싱톤중앙장로교회(담임 류응렬 목사)에서 개최되었다.

롬 15:12 말씀을 주제성구로 '예수, 온 인류의 소망(Jesus, the Hope of the World)'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지난 2016년 제8차 대회 이후 6년 만에 개최된 것이다.

통상 4년마다 개최해 오던 대회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 지난 2년간 대회가 연기돼 왔었다.

대회가 6년 만에 개최된데다 팬데믹이라는 예상 밖의 상황에 대회 가운데 보고되는 선교지 현장의 상황도 크게 변화되어 있었다.

또한 이번 대회는 이제 30-40대 장년층에 접어든 MK세대들이 준비를 함께 했으며, 많은 미주한인 목회자들도 주제강의를 맡아 참여하는 등 대회구성에 있어서도 예년과 다른 참신한 시도들도 이어졌다.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된 이번 대회는 4일동안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한 가운데 진행되었고, 규모 또한 여전히 팬데믹 상황인 것을 고려해 선교사인원 3백여 명, 총 참석자는 1천명으로 축소해서 진행되었다.

개회예배 설교를 맡은 KWMC 대표의장 이승종 목사는 '예수 회복, 세계선교(눅 2:41-50)'라는 제목으로 현재 세계선교에있어 가장 시급한 요소는 바로 교회들이 매너리즘에서 벗어나 예수를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기총, 서울시조찬기도회 창립예배

7월 27일 오전 7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려

서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원성웅 목사, 상임회장 이예경 목사, 사무총장 박원영 목사)는 '서울시와 대한민국을 위한 서울시조찬기도회 창립예배'를 7월 27일 오전 7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드렸다.

서울시조찬기도회는 서울시장부터 25개 구청장, 49개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 112명과 구의원 393명 등 총 580명을 위해 기도하고 교류하면서 기독교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창립된다.

창립예배를 앞두고 지난 7월 1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원성웅 대표회장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뒤집으려는 것에 대해 침묵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적극 나서 서울기독교총연합회를 맡게 됐다"며 "그래서 명칭이 '서울시와 자유대한민국을 위한 조찬기도회'이다. 누구나 와도 좋지만, 자유대한민국과 기독교 신앙에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성웅 대표회장은 "서울시조찬기도회를 1년 2회 정도 대규모로 열고, 계절별로 한번씩 각 교회를 순회하며 해당 지역 정치 지도자들을 초청해 깊이 대화하는 모임을 가지면 좋겠다"며 "정치권 인사들은 기도회 정식 멤버로 참여하긴 힘들 것이고, 자문위원이나 초청자 등으로 나서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7기 취업동아리 활동 10주간 진행

취업경쟁력 향상 이해… 성결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성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4월부터 6월초까지 성결대학교 재학생 및 지역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17기 취업동아리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취업동아리 활동은 동일 분야로 취업을 희망하는 재학생의 체계적인 취업 준비와 기업 및 직무 관련 정보공유를 통한 개인의 취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획되어 저학년과 고학년 대상 학년별 동아리와 금융, 문화예술 기획 및 경영, 사회복지, 품질경영 등 직종별 6개의 동아리까지 총 8개의 동아리가 운영되었다.

대면과 비대면을 활용하여 진행된 취업동아리 활동은 금융, 문화예술,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 스포츠 과학, 사회복지, 품질경영 등 직무와 관련된 학습이나 활동으로 개개인이 희망하는 분야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어 직무 적합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성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변화하는 채용시장에 적응하기 위해 AI 역량검사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재학생 및 지역청년들이 효과적으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취업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돋는마을, 토크 콘서트・밥사랑잔치

엘드림노인대학 설립 3주년 기념으로 열려

쪽방촌과 독거어르신을 밥나눔사역으로 섬기는 (사)해돋는마을(이사장 장헌일)은 지난 7월 6일 독거어르신의 고독사 및 치매예방은 물론 자존감회복과 삶의 소중한 가치를 배우는 엘드림노인대학(학장 최에스더 신한대 교수) 설립 3주년을 기념한 토크 콘서트와 밥사랑잔치를 가졌다.

이날 토크 콘서트에서 소프라노 임청화 교수(백석대 문화예술학부)를 초청해 은혜로운 찬양과 감동적인 가곡을 어르신께 선사하며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더욱 건강하시도록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사랑의 선물과 마스크를 전달했다.

(사)해돋는마을 이사장 장헌일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울하고 답답한 시기인데, 어르신의 치매예방과

삶의 의지를 세워가는 엘드림노인대학 창립 3주년을 맞아 강사로 밥나눔사역 봉사와 후원 특별히 월드뷰티핸즈의 미용봉사등 소셜서비스로 외롭고 소외된 어르신들을 섬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해돋는마을 장헌일 이사장과 엘드림노인대학 최에스더 학장은 임청화 교수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노인대학 강사로는 K뷰티서비스 최에스더 교수(신한대), 실버영어 윤성준 교수(경기대), 어르신 건강 이현아 교수(성균관대), 아름다운노년감사레시피 정지환 소장(감사경영연구소) 웃음치료(최원희 강사) 삶의 인문학(최대휴 강사) 명사특강 임동진 목사(탈렌트) 외 문화예술인을 위촉하고 강사들은 재능기부로 참여 봉사한다.

생명의 말씀

복음과 바울의 신앙

(갈 2:1-21)

정해단 목사
· 김포지방회 증경회장
· 김포샘물교회

바울이 기독교 이천년 역사에 가장 뛰어난 사도요 전도자이며 복음 선포자이고 목회자였음을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갈 2장을 통해 제시된 '복음과 바울의 신앙'을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타협하지 않는 신앙(5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2:5)

그들에게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음은 비 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교회는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함으로 세웠습니다. 그 교회 안으로 거짓 형제들이 가만히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자유를 엿보고 종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의 진리에 서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시대 특별히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은 비 진리와 타협하지 말고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비 진리와 타협하지 말고 바른 복음전파를 위해 사수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갈라디아교회에도 비진리가 난무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단호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 이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 시대 종교다원주의는 사단이 뿌려둔 배도의 씨앗입니다. 그들의 수장은 성경을 그대로 믿는 근본주의를 폭력으로 규정합니다. '근본주의자가 갖는 정신적 구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폭력'이라 했습니다.(2014.6.12.일 스페인 언론과 인터뷰에서) 창조,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을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작금의 상황 속에서 성경에 제시된 복음에 진정 눈이 열려 있다면 우리는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거룩한 곳에 서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자가 누군지 뚜렷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비 진리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둘째, 오직 예수님 믿음 신앙(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2:16)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바울은 사도들이 복음의 진리에 서 있지 않음을 보았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음을 보았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인간은 유죄 판결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는 죄인이다. 그들이 자신의 어떤 행위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공로 의지하여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다가 할례자들이 두려워 외식함을 보았습니다. 그 즉시 바울은 베드로를 면전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했습니다. 비록 대선배요 사도인 베드로였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약화 훼손하는 여하한 시도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믿음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도 동일한 시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아닌 한 길일뿐'이라는 주장에 많은 이가 환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음 구원 신앙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오직 예수님! 예수님 믿음 구원 신앙이 절절한 시대임이 틀림없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 앞에 강했습니다. 바울의 그 신앙이 기독교 이천년 역사에 도도히 이어져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는 자격 없이 이삭 앞에 선 야곱처럼 하나님 면전에서 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에서로소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울은 진리의 파수꾼으로서 오직 예수님 믿음 구원 신앙을 사수했습니다.

셋째, 오직 예수님 십자가 신앙(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2:20)

회심 이후 바울의 삶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삶, 즉 예수님 십자가 신앙이었습니다. '못 박혔나니'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모든 것을 바울은 십자가로 연결시켰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십자가는 극악한 죄인을 처형하는 가장 무서운 형틀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으로부터 외면받는 절망의 자리입니다. 그 형틀 그 절망의 자리에 먼저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셨던 그때의 성경 기록을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 27:46) 예수님의 단말마적 절규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시도 하나님과 단절의 순간이 없었지만 십자가 위에서만은 예외였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과의 단절이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건 탯줄이 끊어진 태아와 방불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탯줄을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바울도 못 박혔습니다. 내 안에도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야 마땅합니다. 그것은 내가 죽는 사건입니다. 나의 못 박힘으로 예수님 십자가 신앙의 견고한 요새가 내 속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삭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살아있는 제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비 진리와 타협하지 않았으며, 사도들과 유대인들에 대하여는 오직 예수님 믿음 신앙으로, 자신에 대하여는 오직 예수님 십자가 신앙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우리 삶 속에도 바울의 삶과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북한 어민 강제 북송 문제 진실을 확실히 밝혀라

지난 2019년 일어났던 소위 북한어민 강제북송 사건이 연일 정치권을 달구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국민들도 매우 궁금하다. 또 국제 사회도 우리나라의 인권 수준에 대하여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사건은 비록 전 정권에서 일어난 것이지만,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문재인 정권하에서 관련자들은 '탈북 의사가 없었다' '귀순 진정성이 없었다' 등인데, 최근 밝혀지기로는 분명히 귀순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 문재인 정권하에서는 북한 당국이 요청하기도 전에 이들을 북한 당국에 인도하겠다고 선제적으로 나선 것인데,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어찌 사지(死地)를 벗어난 사람들을 다시 죽을 곳으로 보내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권을 중시하는 대한민국에서, 인권 변호사를 자처하던 대통령이 있는 나라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이 분명하다.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것은 전 정권의 관련자들이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장관은 그들이 '죽어도 돌아가겠다'는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청와대는 정부의 해당 부처가 있음에도 국가안보실에서 주도하여, 무슨 작전을 하듯 속전속결 · 불법적으로 어민들을 돌려보냈다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북한 김정은의 심기(心氣)를 경호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다. 우리나라는 독립되고 주권을 가진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어찌 북한 당국자의 심기만을 고려했느냐는 것이다. 더군다나 그들은 귀순 의사를 밝혔고, 우리 헌법상에도 우리 국민이다. 헌법 제3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고, 그들은 귀순 의사를 밝힘으로 당연히 우리 국민의 차원에서 예우 · 조 · 조치했어야 마땅했다.

탈북 어부들을 강제로 북송한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불법이며, 잘못된 판단이었다. 그런 현상은 북한 어민을 강제로 북송하는 과정에서도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그들을 판문점에서 북측에 강제로 넘겨주는 과정에서도 나타났는데, 청와대가 그들의 호송을 유엔사령부에 요청하여 거절되자, 국방부에도 요청하였으나 역시 거절당했다. 그 후에는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였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하라는 경찰 특공대의 역할이 고작 탈북어민을 강제로 사지(死地)로 보내는 일을 맡아야 하는가?

국회는 이 사안에 대하여 당시의 관련자들인 청와대국가안보실장, 국정원장, 국방부장관, 통일부장관, 경찰청장,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을 모조리 불러,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런 문제로 신 · 구 정권 사이에 알력이라느니, 견제라느니, 정치보복이라느니 하는 말들은 통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다. 누구라도 범법을 했으면, 그에 상응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정치적 다툼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가진 헌법에 대한 호헌(護憲)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이며, 그렇게도 자랑하는 인권 국가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 놓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정치와 자유민주주의는 퇴보할 수밖에 없다. 국회는 사정기관의 조사와는 별도로 속히 여 · 야가 합의하여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시시비비를 명확히 밝혀내기 바란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런 정도의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국회는 무용지물이다. 국민들의 대표이며, 의회민주주의의 진가를 제대로 발휘하기 바란다.

만약 그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부하는 정당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가혹하리만큼 엄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동정

대학총장포럼 하기해외연수회

정상운 박사(대학총장포럼 회장, 전 성결대 총장)는 지난 7월 11일(월)부터 15일(금)까지 베트남 달랏에서 한국신학대학총장협의회와 한국복음주의신학대학협의회 공동으로 2022년 대학총장 하기해외연수회를 개최했다. '코로나 이후의 대학교육 방향'을 주제로 열린 연수회에서는 달랏대학교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한동대, 모의유엔회의 개최

한동대학교(총장 최도성)는 지난 12일(화)부터 15일(금)까지 3박 4일간 한동대 올네이션스홀과 김영길그레이스스쿨에서 '제27회 전국 대학생 모의유엔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동대 주관, 유엔한국협회가 주최했으며 전국 30개 대학의 학생 240명과 지도교수 등 30여 명이 참가했다.

이명석 교수, IAMS사무총장에

아신대학교 이명석 교수가 지난 7일(목)부터 11일(월)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진행된 세계선교학회(IAMS) 제15차 총회에서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다. 1972년 창립된 세계선교학회는 기독교 선교사역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펼치는 학자들의 모임으로 현재 약 400여명의 회원과 50여개의 기관들이 활동하고 있다.

한남대, 대학축구연맹전 '우승'

한남대학교(총장 이광섭) 축구부가 '제17회 1 · 2학년 대학축구연맹전 백두대간기' 정상에 올랐다. 지난 17일(주일) 강원도 태백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결승전에서 한남대는 고려대를 상대로 4-3으로 승리하며 우승컵을 차지했다. 한남대는 지난 2015년 준우승 이후 7년의 재도전 끝에 우승했다.

홈페이지 www.lovehousecare.com ·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홈페이지 www.lovepn.com

노인 장기요양시설 경기도 이천 사랑의집

사랑과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랑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흥열 목사입니다. 사랑의 집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치매, 중풍, 당뇨, 관절염, 파킨슨병, 노인성질환 및 독거노인, 장 · 단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정성스럽게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전원적인 농촌에 있는 요양시설입니다.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는 내집같은 곳입니다. 깨끗한 시설과 쾌적한 주위 환경…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으며, 풍부한 경력의 요양보호사들이 24시간 상주하여 어르신을 가족처럼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민들의 경제를 생각하여 저렴한 요양비로 모시고 있으니, 저희를 믿고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랑의 집에서 가족처럼 정성을 다해 모실 것을 약속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집 원장 박흥열 목사

어르신을 내 가족처럼 내 부모처럼 모시겠습니다

사랑의집 연혁

2009. 07. 10 사랑의집 개원 (9인 시설 공동생활가정)
2011. 07. 27 사랑의집 신축건물 준공
2011. 11. 23 사랑의집 (15인 시설 인가)
2014.02. 10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봉사단체 설립)
2019. 09. 23 사랑의집 (20인 시설 인가)
2020. 05. 11 사랑의집 (29인 시설 인가)

사랑의집 시설장
(박흥열 목사 수상경력)

2007. 10. 3 이천국회의원 표창
2014. 12. 13 이천시장 표창
2016. 02. 18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019. 09. 28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표창
2020. 12. 18 이천시장 표창

요양보호사 모집
사랑의집 연락처 : 031-643-4041
주 소 : 경기도 이천시 율면 금율로 828번길 198-50
010-2217-4489 010-8732-4489

오성사랑교회(담임 박흥열 목사)

동부전선 3군단 향로봉불꽃교회 방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총회장 신재영 목사) 군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는 지난 7월 14일(목) 동부전선 3군단 기린대교회와 향로봉불꽃교회를 방문하고 지구온난화로 인해 급격히 더워진 무더위에도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다.

이날 위로방문에 함께 한 교단 관계자는 교단 총회장 신재영 목사를 비롯 직전총회장 임웅재 목사, 군선교위원장 박순용 목사, 부총회장 정의섭 목사, 총무 이경진 목사, 부흥사회장 김기진 목사, 부흥사회 총무 오세준 목사, 부흥사회 서기 임형순 목사 등이 참석했으며 3군단장 김봉수 집사와 정한진 군목이 군단내 기린대교회에서 부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주요 업무상황을 소개해 주었다.

군단장실로 자리를 옮겨 3군단 산악부대 활동에 대한 홍보영상을 시청한 뒤 총회장 신재영 목사의 국토방위 장병들에 대한 축복기도를 통해 무더운 날씨에도 조국의 안보를 위해 철통같은 방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장병들에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강조하고 기도하는 장병들이 될 것을 당부했다. 점심식사 후 향로봉중대를 방문한 교단 관계자들은 향로봉불꽃교회에서 장병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축복의 말씀을 증거했다. 이날 예배에서 총회장 신재영 목사는 사 43:4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성경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것처럼 여러분 모두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서 자신 있게 용기 있게 전진하는 장병들이 될 것"을 축복했다.

총회장 신재영 목사는 2400명 부대원들에게 음료수와 아이스크림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 군단장 김봉수 집사는 방문하여 격려해 주신 교단 총회장 신재영 목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에게 감사장을 전했다. 참석자들은 군부대 선교가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당부했다.

목양신문은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합니다! 동성애자는 사랑으로 품지만 동성애는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역차별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제정을 반대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합니다!

- 구독문의(우편발송요금) 02)2677-9936
- 광고문의 02)2677-9936 FAX 0504)027-0897
- 웹하드 : ID mok677 PW 5277
- E-mail : mok2677@naver.com / mok2677@kakao.com

월례회 갖고 충성된 일꾼 다짐

부산지방회

부산지방회(회장 정기영 목사)는 지난 7월 11일(월) 오전 11시 순복음민들레교회(담임 김주성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와 국가안보를 위해, 총회와 지방회, 산하 교회의 부흥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지방회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김태주 목사(순복음부산우리교회)의 사회로 김광수 목사(순복음아바교회)의 대표기도, 윤정희 목사(순복음아바교회)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정기영 목사(순복음세움교회)의 고전 15:45~50 말씀을 본문으로 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이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정 목사의 설교 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고, 김연옥 목사(행복한선교교회)의 헌금기도, 증경회장 고영권 목사(순복음한세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에서는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여름 하기 수양회를 9월 말경 갖기로 한 후,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실 아름다운 수양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할 것을 당부했다. 이후 회원들은 순복음민들레교회에서 준비한 간식과 식사를 함께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각자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전기총연, 제2회 정기총회 개최

자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수호에 앞장

전국 각 지역별 기독교연합회가 하나로 연대한 (사)전국17개광역시도226개시군구기독교총연합회(고문 조용목 목사, 이사장・대표회장 임영문 목사/이하 전기총연)는 지난 7월 11일(월) 오후 부산시 온종합병원 정근홀에서 제2회 정기총회 및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조직 체계를 확립했다.

1부 예배에서는 고동환 목사(세종기총 회장)의 사회로 남택률 목사(광주기총 회장)의 기도, 이순구 목사(제주기총)의 성경봉독에 이어 이경은 목사(경남기총 회장)가 '옷단귀에 술을 달라' 를 주제로 설교했다.

이 목사는 "마지막 먹고 죽을 양식을 드린 사르밧 과부처럼 자신의 삶을 바치신 여기 계신 분들을 통해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설 줄 믿는다"고 전했다.

특별기도 시간에는 최만준 목사(충남기총 회장)가 '대한민국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임채영 목사(전북기총)가 '퀴어축제 저지를 위해', 이우탁 목사(울산기총)가 '차별금지법 폐지를 위해', 장갑덕 목사(대전기총, 전기총고문)가 '한국교회와 다음세대를 위해' 기도를 인도했다.

이후 이상민 목사(대구서문교회)의 축도와 홍호수 목사(전기총연부사무총장)의 광고로 1부 예배를 마무리했다.

2부 정기총회는 이사장 겸 대표회장 임영문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임 목사는 환영사에서 "자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수호하기 위한 더욱 원대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전기총연과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보수시민단체 및 전국기독교총연합(보기총)이 연대식을 맺어 더욱 힘차게 전진하려 한다. 이러한 끈끈한 연대가 최선의 길이라 믿는다"고 했다.

정성훈 목사(부기총 증경회장)는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시국 상황 속에서 임영문 대표회장님의 리더십과 정근 장로(온종합병원장)님의 전략적・이론적 뒷받침을 통해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써, 전기총연이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서문을 통해 축사한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은 "전기총연의 정기총회 및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한 총회가 되길 소망한다"고 했다.

이어진 회무처리에서는 정관변경의 건, 경과 및 활동보고, 회계보고, 조직보고, 임원인준, 사업승인 등을 처리하고 임원 대표로 고문 이상민 목사(대구서문교회)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한 부이사장 정근 장로(평신도회장, 온종합병원장)는 "전기총연이 한국교회를 섬기는 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평신도이사회가 각 영역의 전문가들을 구성해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서울사무국과 부산 부산진구 부산사무국 설립, 홈페이지 개설, ONN 뉴스 전기총연 코너 개설 등의 진행상황을 알렸다.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70인 천년초식품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백년초는 멕시코 산으로 독성이 있습니다.
천년초는 토종 한국산으로 독성이 없습니다.
천년초와 백년초는 완전히 다른 종입니다.
*천년초는 인체에 무해하며 독성을 지니지 않음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발표)

천년초의 효능

1)페놀성물질
1 손상된 신체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쥐실험)
(*고려대학교 손용석 교수님 암쪽으로 세계특허냄)
2)플라보노이드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탁시폴린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연구논문)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6)칼슘 :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이 연구를 통해 발표됨.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찧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차별금지법, 인권조례법안, 주민자치법 폐지해야

제 7차 민족복음화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조찬기도회… 자유민주주의 종교의 자유 수호

(사단법인)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

(사)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

사단법인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대표회장 진등용 목사)는 2022년 제7차 민족복음화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조찬기도회를 지난 7월 25일(월) 오전 7시 양문교회(담임 이승수 목사, 상임회장)에서 개최하고 차별금지법 저지와 주민자치법 등 악법제정 저지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날 1부 예배에는 실무회장 조이철 목사(아산성결교회)의 사회,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진 목사는 대회사를 통해 "지난 정권에서 교회를 탄압하고 악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를 과감히 배척하고 현 정부를 도와 교회를 수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당부했다.

이어 "차별금지법 주민자치법 제정 저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안정적인 국가안보와 정부 운영을 위해 힘을 모아 나라를 지켜낼 것"을 강조했다.

한상문 장로 (온양온천감리교회, 후원회 회장)의 대표기도, 본회 회계 임은혜 목사(하늘빛교회)의 성경봉독에 이어 아산시포럼 대표 김원진 목사(이레교회)의 설교가 이어졌다.

김 목사는 대하 7:12-16 말씀을 본문으로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거룩하고 귀한 곳은 하나님의 집 교회이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눈과 마음과 귀를 기울여 그곳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전한 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새로 취임한 박경귀 아산시장을 위해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지도자가 되기를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본회 재무 이은혜 목사(은혜교회)의 헌금기도, 충기총연 전 총회장 이승수 목사(양문교회)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이어진 2부 순서는 본회 상임회장 온재천 목사(광혜교회)의 사회로 아기연 대표회장 임정대 목사의 축사, 홍문표 국회의원(홍성, 예산)의 격려사, 이명수 국회의원(충남도당위원장)의 국정보고, 박경귀 아산시장의 시정보고 순으로 이어졌다.

상임회장 황기식 목사의 사회로 열린 3부 임직축하 순서는 상임회장 박노섭 목사(삼광교회)에게 공로패를, 실무회장 조이철 목사(아산성결교회)에게 위촉패를, 정용록 목사에게 사무총장 임직증서를 이영규 목사에게 서기 임직증서를, 이은혜 목사에게 재무 임직증서를, 임은혜 목사에게 회계 임직증서를 각각 증정했다.

봉암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는 신상우 시인은 축시를 낭독하고 신임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시를 헌정했다. 아울러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는 임명식과 함께 자문위원을 추대했다.

신임자문위원에는 홍문표 홍성예산 국힘 국회의원, 김태흠 충남지사, 박경귀 아산시장, 박하식 전)삼성교장이 임명되었다. 이어진 4부 기도회 순서로 상임회장 박노섭 목사(삼광교회)의 사회로 1) 민족복음화와 성시화를 위하여 상임회장 이정팔 목사, 2) 나라와 민족과 윤석열 대통령을 위하여 부회장 이광로 목사, 3) 아산시발전과 박경귀 아산시장을 위하여 부회장 구자범 목사, 4)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 제정반대를 위하여 부회장 서석웅 목사의 순으로 기도시간을 가졌다.

'예배·기도' 몸과 마음의 치유… 수양관 개관

천혜의 유명 휴양지 영흥도에 예배처와 숙소 마련
순복음부흥교회·은혜교회 수양관 개관 감사예배

설교 정석현 목사 경기남지방회 증경회장

서경오 목사 순복음부흥·은혜교회 수양관 담임

경기남지방회(회장 박흥렬 목사) 순복음부흥교회·은혜교회(담임 서경오 목사)는 지난 7월 23일(토) 오후 5시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757번길 136 영흥도 해변 인근에 아름답게 세워진 리모델링 된 수양관 현장에서 수양관 개관 감사예배를 드리고 어려운 시대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몸과 마음의 치유를 체험하고 귀한 터전을 마련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이날 수양관 개관예배는 지방회 부회장 서성영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증경회장 최병일 목사의 대표기도, 회계 표헌자 목사의 성경봉독, 지방회 증경회장 정석현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정 목사는 창 28:13-15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하시는 하나님' 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축복이 임하였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전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사 응답해 주신다"고 강조했다.

정 목사는 또 "귀한 수양관이 허락되기까지 담임 서경오 목사님과 사모님, 성도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앞으로 더욱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 질줄 믿는다"고 강조한 뒤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이어 지방회 증경회장 김남수 목사의 헌금기도, 부흥·은혜교회 박민수, 황현지 성도의 특송으로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순서로 축사와 권면, 등의 시간이 계속되었다.

축사 순서로 지방회 증경회장 김기인 목사는 기도하는 백성이 넘쳐나는 수양관이 될 것을, 성서제일침례교회 고헌식 목사는 기도소리가 차고 넘치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수양관이 될 것을, 루터회 증경총회장 김철환 목사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수양관이 될 것을 각각 축복했다.

이어 순복음부흥교회·은혜교회 담임 서경오 목사의 은혜로운 특송 후 권면의 시간으로 충남지방회 증경회장 장호순 목사와 교단 전직 부총회장 조원익 목사의 권면이 있었다.

순복음부흥교회·은혜교회 담임 서경오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펜데믹 상황 속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곳 수양관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의 수련장으로 예배를 드리며 힐링이 되는 쉼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돌리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이날 수양관 개관 감사예배는 경기남지방회장 박흥렬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고 참석자들 모두는 만찬을 함께 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눈 뒤 각자의 목양지로 향했다.

순복음부흥교회.은혜교회 수양관은 수도권에서 한 시간 정도면 찾을 수 있는 인천 영흥도에 소재해 있으며 섬 아닌 섬으로 영흥대교를 거쳐 육로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영흥도 일대는 때 묻지 않은 천혜의 입지 조건을 갖춘 사계절 유명 휴양지로 많은 여행자들이 찾아오고 있다.

특히 여름철에는 바로 인접한 수심이 낮은 안전한 해변들이 곳곳에 있어 해변 모래사장에서의 추억을 쌓기도 하고 써핑과 함께 낚시, 수영, 갯벌체험, 캠핑 등 다양한 해양스포츠를 즐기는 가족단위 여행객들로 넘쳐나는 곳이다. 순복음부흥교회·은혜교회 수양관에서는 휴가철 영흥도를 찾은 여행객들도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기도 하다.

순복음부흥교회·은혜교회 수양관은 1층 예배실과 냉난방 시설을 갖춘 33개의 객실을 준비하고 형편 닿는 대로 머무르며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성령충만 받기 위해, 신앙의 성숙을 위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문제해결과 신유를 위해 기도하는 처소로 누구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와 사용되기를 바라고 있다.

032)880-1715, 010-2371-5717

사단법인 아산시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대표회장 본부장 실무회장 사무총장 상임회장

진등용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정용록 목사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박노섭 목사 박귀환 목사 온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김병완 목사 홍석용 목사

고문: 정연창 목사, 강상철 목사, 김소윤 목사, 김형태 목사, 이영한 목사, 연용희 목사, 이두영 목사, 임기석 목사, 신상우 목사
자문위원: 이명수(국회의원), 홍문표(국회의원), 김태흠(충남도지사), 강훈식(국회의원), 박경귀(아산시장), 김종오(아산경찰서장), 강희복(전 아산시장), 박성기(U1대 교수), 박하식(전 삼성고 교장)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
본부장: 김수홍 목사 실무회장: 조이철 목사 사무총장: 정용록 목사 총무: 차추병 목사
상임회장: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박귀환 목사, 온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김병완 목사, 홍석용 목사
공동회장: 진등용 목사, 노선웅 목사, 이두영 목사,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도승현 목사, 임은석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정훈화 목사, 박노섭 목사, 황창익 목사, 심우섭 목사, 최문기 목사, 박귀환 목사, 온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손 혁 목사, 김병완 목사, 홍석용 목사
지도위원: 박차영 목사, 박판용 목사, 최성덕 목사, 김병철 목사, 표의성 목사, 김관호 목사, 김득수 목사, 박봉순 목사, 송화섭 목사, 이재구 목사, 최재희 목사, 박신석 목사, 엄태일 목사, 최상근 목사, 황하성 목사, 최순식 목사, 김완진 목사, 백현기 목사, 김준호 목사, 김성구 목사
부회장: 이광로 목사, 서석웅목사, 장헌원 목사, 정병한 목사, 윤돈상 목사, 이덕희 목사, 길성권 목사, 곽일귀 목사, 조계성 목사, 김의중 목사, 유현희 목사, 고영기 목사, 김청환 목사, 엄태일 목사, 이재두 목사, 김주섭 목사, 김현준 목사, 박덕수 목사, 구자범 목사, 안덕근 목사, 안흥규 목사, 고영기목사, 박성화 목사 ,장정우 목사
사무총장: 정용록 목사 총무: 차추병 목사 서기: 이영규 목사 재무: 이은혜 목사 회계: 임은혜 목사 회원: 아산시 400교회
상임총무: 박성민 목사, 이석주 목사, 이춘호 목사, 임해성 목사, 김종권목사, 정미숙 목사, 권필희 목사, 안상욱목사, 안준호목사, 홍은식 목사, 김희석 목사, 오세완 목사
후원회 회장: 한상문 장로 후원회 총무: 황의덕 장로
후원회: 배성한 장로, 김영식 장로, 박동국 장로, 장상근 장로, 오좌근 장로, 김도식 장로, 김수흥 장로, 임도순 장로, 이익상 장로, 황의덕 장로, 신요섭 장로, 이세영 장로, 김현우 장로, 박해서 장로, 한장섭 장로, 이창식 장로, 광웅기 장로, 차영환 장로, 김기운 장로, 박노완 장로, 김현진 장로, 한상문 장로, 정진경 장로, 이희열 장로, 박종탁 장로 (外 각 교회 장로)

제13차 탈동성애 기독포럼 세미나 개최

홀리라이프, '교회, 탈동성애를 말하다' 주제로 길원평 교수 등 나서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사회정책위원회와 건전신앙수호연대, 시티미션처치가 공동주최 하고 홀리라이프가 주관한 제13차 탈동성애 기독포럼 세미나가 14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개최됐다.

'교회, 탈동성애를 말하다' 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는 이요나 목사(홀리라이프 대표)와 이규 목사(시티미션처치), 길원평 교수(동성애반대시민연대), 김병언 목사(His House), 하다니엘 목사(건전신앙시민연대)가 발제자로 나섰다.

기조발언에 나선 안용운 목사(행복한윤리재단 이사장)는 "'성적지향' 이라는 단어 때문에 지난 20년간 한국은 몸살을 앓았다"며 "한국교회가 반동성애 운동을 넘어 더욱 적극적이고 근원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탈동성애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안 목사는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왜곡된 성중독으로, 창조질서에 어긋나는 비윤리적 행위이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이다. 마귀의 일에는 거짓말이 있듯이 동성애가 유전적이고 선천적이라는 주장을 한다"면서 "이러한 거짓 주장을 가장 잘 부술 수 있는 것은 탈동성애다. 탈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커밍아웃을 하면서 동성애가 유전적인 것도 아니고 선천적인 것도 아닌 성중독에 불과하다고 밝힐 때 저들의 거짓말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동성애 투쟁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보다 적극적이고 근원적인 대책으로 탈동성애 운동도 활발하게 펼쳐야 한다"면서 "동성애는 미워하지만 동성애자는 사랑하고 구원해야 할 전도 대상자이다. 동성애자들은 복음이 아니면 자유로워질 수 없다. 한국교회는 동성애자들을 자유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동성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발제한 이요나 목사(홀리라이프 대표)는 "동성애자들을 복음으로 능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경전으로 삼는 하나님의 교회 일각에서 신구약 성경에 명확하게 명시된 동성애 범죄행위에 왜곡된 해석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논리를 적용하려는 교리적 배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종말론적 세태적 위기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경각심을 갖고 동성애 반대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 목사는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것이다. 지옥에 간다' 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아주 잘못된 판단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죄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그의 이름으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고 말했다.

이어 "동성애는 능히 복음으로 극복하고 온전함을 얻을 수 있는 죄의 목록"이라며 "이제 우리 교회가 나서서 동성애자들을 적으로 삼지 말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저들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긍휼하신 은혜의 복음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오늘날 동성애와 같은 난제에 부딪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복음의 진리로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오늘날과 같이 불의로 가득한 세상에 동성애와 같은 죄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공의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축사를 전한 이규 목사는 "탈동성애 무브먼트가 지금은 작지만 다윗의 손에 들려진 물맷돌과 같다고 생각한다. 정확하게 원수의 급소에 떨어지면 거대한 승리를 거둘 수 있으리라 본다"며 "동성애의 성적 타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탈동성애 운동은 수년 내에 복음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역이라 생각한다" 고 말했다. 세미나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하다니엘 목사의 인도로 황연식 목사(한장총 사회정책위원회 위원장)가 기도하고, 김종준 목사(한장총 직전 대표회장)가 말씀을 전했다.

이날 세미나를 총괄한 한장총 국제탈동성애대책위원장 하다니엘 목사(건전신앙시민연대)는 "동성애 단체들은 유엔과 동성애 지향 서방국가들을 등에 업고 성소수자 인권을 내세워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저들의 하수인이 됐고, 상업주의의 기업들과 대권을 노리는 정치인들까지 동성애 이슈에 합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더 이상 저들에게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복음의 지혜로서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더 나아가 동성애로 신음하는 크리스천 동성애자들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한 탈동성애 운동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세계 성서 반포 현황 발표

펜데믹 폭풍우 속에서도 3,200만부 이상 성경 반포

세계성서공회연합회가 발표한 2021년 세계 성서 반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에 총 169,800,000부의 성서가 보급되었고, 32,600,000부가 넘는 성경이 반포되었다.

세계적인 펜데믹 가운데서도 전 세계 후원자들은 나눔의 정신으로 위기에 반응하여 성서공회들의 사역이 지속되게 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성서를 계속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0년 초, 펜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성서사업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약 90개 나라 성서공회들은 수입이 급격히 줄어들어 큰 타격을 입었다.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소망을 필요로 하는 때에 성경 반포가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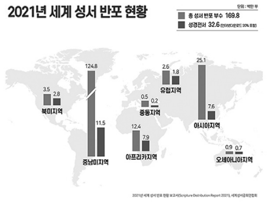
그러나 이 중요한 순간에 전 세계 성서공회 가족들과 그들의 후원자들이 발을 벗고 나섰다. 가장 큰 위기에 놓인 성서공회들을 돕기 위한 연대기금이 출범했고, 어려움에 처한 성서공회들은 재정적 지원과 자국에서 반포할 성경을 받았다.

파나마의 성경 반포는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거의 4배로 성장하였다. 마르코 고메즈 총무는 "도움의 소식은 우리에게 마치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처럼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성서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도움을 잘 활용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베냉에서의 성경반포는 펜데믹 전보다도 더 높은 수준으로 68% 증가했다. 임마누엘 칸코우 총무는 "도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했고,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될 것이라는 뜻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지키엘은 2021년 성서공회로부터 성경을 받게 되어 너무 기뻤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부모님과 저는 기독교인이지만 제겐 성경이 없었어요. 제가 제 소유의 성경을 갖게 된 후부터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묵상을 하고 있어요."

2021년 태풍과 테러 공격을 받은 모잠비크에서는 성경 반포가 두 배 이상 늘어났다. 5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성경전서를 받거나 다운로드하였다. 발렌테 세코 총무는 "하나님께서는 연대기금을 통해서 코로나



19로 인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라고 말했다.

세계에서 기독교인으로 지내기에 가장 위험한 나라들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성서 반포가 증가했다. 기독교인이 인구가 1% 미만이고, 성도들이 큰 억압을 받고 있는 이라크에서 펜데믹 기간 동안 성경 반포가 두 배 이상 늘어났다. 또한 2021년에 이라크에 10만 부가 넘는 성서 품목들이 반포되었는데, 이는 2020년에 보급된 것보다 8배 이상 늘어난 수이다.

이라크성서공회 총무는 성경 반포의 급격한 성장과 관련하여 최근 기독교인들이 IS(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부대원들이 떠난 카라코쉬와 같은 도시들로 귀향하고 있는데, 그곳에 있는 교회에 성경이 필요했기 때문에 반포가 늘어났을 것으로 보았다. 무엇보다 이라크의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을 반포가 늘어난 큰 이유로 꼽았다.

중남미 대규모 성서 반포를 통해 160만 부의 신약성서가 무상으로 보급되었고, 그 중 대다수는 2021년에 반포되었다.

2019년에는 스페인어권 10개 나라에서 백만 부의 스페인어 신약성서를 보급하기 위한 한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성서는 쿠바,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파라과이와 페루에서 무료로 배포되었다. 이 캠페인을 통한 최종 신약성서는 2021년에 배포되었다.

74주년 제헌절을 지내며

"제74주년 제헌절을 지내며 대한민국 건국이념인 자유민주주의 헌법 지키는 데 온 국민이 단결하자"

2022년 7월 17일은 대한민국 국민이 일제의 강제점령으로부터 해방되어 처음으로 헌법을 제정한지 74주년이 되는 제헌절이다. 5년 전 보수정권의 박근혜가 탄핵당하여 친중 종북 정권이 들어섰으나 그 동안의 실정으로 인해 올해 5년 만에 정권이 다시 교체되었다. 그럼으로써 그동안 흔들렸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그동안 샬롬나비는 지난 정권의 중국과 북한에 대한 굴욕적 외교, 미국과의 엇박자, 일본에 대한 적대시,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행한 국민통제, 그리고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행한 성별, 세대별, 계층별 갈라치기 등에 우려를 표명하여 왔다. 이제 윤석열 새로운 정권을 맞이하여 다시는 앞선 정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이제 샬롬나비는 대한민국이 보다 나은 국가, 헌법이 준수되는 국가가 되기 위한 준비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대한민국 국민 전체, 지난 정부 책임자들, 새 정부 책임자들, 한국사회, 그리고 한국교회에 천명하는 바이다.

1. 국민 모두는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일찍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도움을 받아 1945년 일제치하로부터 해방되었다. 이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독립지사들의 희생을 통해 성립되었고 또한 자유민주주의로 운영되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북한은 해방이후 곧바로 소련 및 공산주의 진영의 도움을 받아 한반도 공산화를 획책하면서, 1946년 2월 북조선인민위원회를 먼저 수립하였고, 호시탐탐 적화 야욕만을 불태웠다. 자유민주주의를 원하던 남측 인사들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통해 1948년 7월 17일 자유민주이념의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수립하였다. 이 역사적 날이 제헌절이다. 제헌절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 선포된 날이다. 당시 대한민국은 유엔이 한반도에서 인정하는 정식 정부이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상하이 임시정부가 선언한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에 따라 유일하게 한반도 내에 합법적으로 성립된 정부이다. 이는 우리가 결코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할 수 없는 중요한 근거이다.

2. 지난 정부 책임자들은 진정한 사과를 통해 반성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새 정부 책임자들에 협력해야 한다!

1980년대의 운동권 세력을 주축으로 구성되었던 지난 문재인 정부는 구시대적 친중국 종북주의 연방제의 환상을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과 외교관계를 후퇴시킨 큰 우를 범하였다. 해수부 공무원이 서해에서 실종되어 표류하다 북한군에 의하여 사살되고 불태워지는 상황에서도 지난 정부는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그를 국가의 배신자로 모는 반인륜적 국가 경영을 하였다. 지난 정권 책임자들은 중국에 대하여는 3불(不)이라는 안보 종속의 친중 굴종외교를 펼쳤고, 일본에 대해서는 국가 간 맺은 조약을 무효화하는 외교적 결례를 범했고, 일본의 항의에 대해서는 동학란의 죽창 부대를 들고 나오면서 반일 정책을 펼쳤다. 이 외에도 삼권분리의 법치주의를 훼손하였고, 검찰의 독립을 훼손하였으며, 또한 검수완박이라는 희대의 악법을 통해 자신들의 비리와 불법에 향할 사법의 칼날을 피하는 것에만 전념했다. 앞서의 정치적 문제들과 더불어 운동권 세력 각 개인들 역시 자신들의 주장과 정반대로 비윤리적인 행위를 일삼았으며, 이는 많은 지난 정부 인사들의 비리로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바이다.

5년 만의 정권교체는 이러한 지난 정부의 잘못을 통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자들은 사과는 커녕 국회의원의 숫자를 무기로 새 정부의 발전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이전의 잘못은 분명히 반성 되어야 하며, 이러한 반성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 새 정부의 노력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자세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3. 새 정부 책임자들은 지난 정부의 잘못을 거울삼아 늘 겸손하게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

첫째, 윤석열 새 정부 책임자들은 지난 정부가 잘못한 외교의 문제를 회복해야 한다. 중국과 북한에 굴욕적 외교를 시행했던 사실을 자각하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우방이 누구인지 확인함으로써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안 좋은 과거는 망각하지 않되 지금 국가의 안정과 이익을 위해 어떤 세력과 함께 해야 하는지 냉철히 판단하고, 그럼으로써 지난 정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새 정부는 사회 내 갈등 해결에 가장 먼저 나서야 한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지난 정부가 행했던 성별, 세대별, 계층별 갈라치기의 문제를 직시하고 더 이상 갈등을 통해 국력이 낭비되는 사태나, 국민 개개인이 다른 국민에 대해 혐오와 폭력을 가하게 되는 상황을 막아내야 한다.

셋째, 새 정부 책임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자신들의 도덕적, 윤리적 사항들을 점검하고 늘 겸손하게 권력을 사용해야 한다. 국가의 살림을 책임지는 공직사회가 사익 때문에 무너지게 될 때 결국 전체 국가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 세계 곳곳에서, 그리고 역사 전체에서 발견할 수 있다. 가장 먼저 권력을 가진 자들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바로 서게 될 때 그들의 다스림 역시 바로 설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대한민국의 기강이 바로 서고 국민의 삶이 안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4. 윤석열 정부는 제헌절의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가 무너진 지난 5년간의 국가 경영을 바로 잡아야 한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은 제헌절 헌법과 법치주의를 훼손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은 대한민국은 황제의 나라가 아니요 국민이 주인된 나라요, 권력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을 명시했다. 그리고 제헌헌법은 대한민국의 체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당시 북한은 소련군이 진주하여 소련이 주도한 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이에 반하여 제헌국회는 유엔 감시하에 전국적 자유 비밀선거를 통하여 국회의원을 선출하였고, 그 국회의원들이 제헌국회를 구성하여 제헌헌법을 만들고 대통령을 선출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은 유엔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적 정부임을 승인받았다. 이런 제헌절의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 의하여 훼손되었다. 지난 70여 년간 지켜온 형사법인 기초인 검사의 공소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수완박법이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제 윤석열 정부는 스스로 헌법에 충실하여 국정을 운영하고 법치주의를 철저히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5. 헌법재판소는 문재인 정권의 국회가 논란 속에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이 폐기되도록 선언해야 한다.

지난 국회에서 국민적 논란으로 거대여당의 폭거로 통과된 검수완박법은 비리은 폐법으로 폐기되도록 헌법적 성찰과 선언이 있어야할 것이다. 지난 70여 년동안 형사법 체계로 작동되어온 검사 공소의 원칙을 완전히 경찰에 넘겨주게 됨으로써 우리 사법체계에 큰 혼란이 생기게 되었다. 정권을 빼앗긴 후 한달 만에 사법체계를 변경한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러 법 전문가들은 사법체계의 시스템이 무너진다는 법치 시스템 파괴를 경고하였다. 여태까지 검경이 나름 분업해서 일하던 시스템 자체가 무너졌다. 우리 헌법은 검찰과 법원을 형사 사법 제도의 두 축으로 설정하고 있다. 검찰총장을 수장으로 하는 검찰에는 수사와 소추권을, 대법원장을 수장으로 하는 법원에는 재판권을 주고 있다. 경찰은 치안 질서 유지가 주 업무이고 범죄 수사에서는 검찰의 보조 기관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헌법의 형사 사법 제도를 완전히 파기하는 헌법 파괴 행위다.

그러므로 헌법 재판소는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검수완박법을 위헌으로 선언해야 한다.

6. 한국교회는 먼저 자신의 과오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공법을 지키고, 국민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준법적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일제강점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 경제발전의 시기 및 민주화시기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대형화됨과 동시에 수많은 교회 내외적 갈등들을 겪게 되었고, 나아가 목회자 개인들의 법률적, 윤리적 일탈 및 지나친 좌우로의 정치화로 인해 손가락질 받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공직자들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한 정권이 임기가 끝나면 많은 전직 공직자들이 감옥에 가는 사례가 빈번하였다. 지난 정권 말에 거대여당이 검수완박 법을 국민 여론에 거역하면서 위헌이라는 논란 속에서 통과시킨 것도 재임시 저지른 탈법과 비리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서 검사의 공소권을 박탈한 것이다. 공직자들부터 준법정신을 지켜야 한다.

공직자들에게 준법정신이 없으니 우리 사회는 자기의 안위를 위해 사람들을 해치고, 나아가 자기만의 이득을 위해 법을 어기고 다른 이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탈법주의가 횡행하고 있다. 또한, 물질만능주의에 의해 한국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법망을 피하여 그 어느 때보다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수단들을 통해 부의 축적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앞에서 한국교회 일부 인사들은 세금 내는 일을 기피하여 세상 법을 지키지 못한 일부터 가장 먼저 회개하여야 한다. 대형교회의 목회자들은 교만을 통해 나타났던 다양한 교회 내외적 문제를 과감히 공개하고 회개의 담론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법망을 피하려는 탈법주의를 버려야 한다. 한국교회는 세금을 내는 일에서부터 공법을 지키는 모범을 보이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사소한 탈법도 인정하고 고치는 자정의 노력으로 국민 전체가 받아들이고 따를 수 있는 준법적 모범을 보여야 한다. 한국교회는 헌법의 정신을 지키는 모범이 되어야 한다.

7. 윤석열 정부는 집권 유지라는 인기주의(populism)에 연연하지 말고 헌법이 명시한 법치주의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라.

제74주년 제헌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대한민국의 기본이 제헌헌법의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기본인 입법, 사법, 행정이라는 3권 분립 정신을 철저히 준수하고 제왕적 대통령주의에 빠지지 않고 헌법 정신에 따라 모든 국가 경영에 법치가 작동하도록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정권의 출발을 기점으로 새로운 기회와 위기 앞에 서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고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볼 수 있는 대한민국과 그 국민이 되어주길 소망한다. 미중 냉전과 북핵 도발의 한반도 주변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동북아 선진 자유민주국가라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가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탈피하기 위해 청와대가 아닌 용산 집무실에서 대통령 집무를 시작한 윤석열 정부가 제헌절 정신과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주는 국가경영을 해 주기를 바란다.

2022년 7월 14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탈북어민 북송사건, 그 반인륜적 범법 행위를 규탄한다"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통일부가 공개한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 당시, 판문점에서 선원 2명이 송환되는 과정이 담긴 사진 10장을 보고 충격과 경악을 금할 길이 없다. 당시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사진에는 탈북 어민이 포승에 묶인 채 북에 넘겨지지 않으려 처절하게 저항하는 장면과 그런 어부를 강제로 끌고 가 북측에 인계하는 정부 관계자의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탈북선원 강제북송 사건' 은 그동안 갖가지 설과 의혹에 묻혀 있었다. 당시에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군 장교가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어민 북송을 보고하는 내용이 우연히 국회 출입기자의 카메라에 찍혀 비로소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정부와 청와대, 군 할 것 없이 그 누구도 이런 중대한 사건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이 사건이 백일하에 드러나자 이들이 동료 어부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고 귀순할 의사도 없어서 북에 송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에 통일부가 밝힌 내용은 전혀 다르다. 이들은 해군에 나포될 때부터 귀순 의사를 밝혔고, 국정원 합동조사 때 자필로 귀순 의향서까지 써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다"라고 국회에 나와 증언했다. 어부들이 "죽어도 북에 가서 죽겠다고 말했다"고도 했다. 그런데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포승에 묶여 끝까지 북송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놓고도 장관이 국회에 나와 이런 거짓말을 했다니 국민을 속이고 기만한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일설에 의하면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이 이들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북측에 먼저 송환 의사를 타진했다고 한다. 동시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을 초대하는 대통령의 친서도 함께 보냈다고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남북정상회담 깜짝 이벤트 연출을 위해 탈북어민의 목숨을 김정은에게 공물로 갖다 바쳤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어찌 이런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것이 스스로 인권 변호사 출신 이력을 자랑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본 모습이란 말인가.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이런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가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벌어질 수 있는지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들이 동료를 살해한 살인범이고 흉악한 범죄자라는 말로 강제북송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해를 손바닥으로 가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헌법 제3조는 탈북민은 범죄자이건 아니건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법 제32조는 탈북민은 한국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와 90일 이내 이의를 신청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런 모든 법적 권리를 박탈하고 이들을 사지로 몬 반인륜적 행위는 그 어떤 이유와 변명으로도 덮을 수 없는 범법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청소년 생명나눔 홍보단 3기 발대식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장기기증의 중요성과 올바른 생명의 가치 알린다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 목사, 이하 본부)는 최근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소재 본부 사무실에서 청소년 생명나눔 홍보단 온(溫)택트(이하 온택트) 3기의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본부는 "지난해 1, 2기에 이어 올해 3기 활동을 시작하는 온택트는 총 30명의 청소년들이 단원으로 선발되어 생명나눔의 가치를 알린다. 이번 발대식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대표학생 9명만 참여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비대면 방식(Zoom)으로 함께했다"고 했다.

앞서 본부는 지난해 5월부터 청소년들이 생명나눔의 주체가 되어 또래 집단을 대상으로 생명의 존엄성과 장기기증의 참된 가치를 알리는 온택트를 발족해 29명이 수료한 바 있다.

이어 올해에도 본부 홈페이지에서 지난 6월 7일부터 6월 26일까지 전국에 있는 17세~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택트 3기 모집이 진행되었으며,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했거나 평소 생명나눔에 관심이 많았던 청소년 50여 명이 지원했고, 서류심사를 거쳐 30명을 최종 선발했다.

본부는 "1·2기 선임 단원들의 적극적인 장기기증 홍보활동의 배턴을 이어받은 온택트 3기는 7월부터 세 달간 장기기증의 중요성과 올바른 생명의 가치관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게 된다"며 "주요 활동은 자신의 SNS에 2주에 1회 이상 장기기증 관련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과 장기 이식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직접 제작한 홍보물을 온라인에 배포하는 것"이라고 했다.

월드비전, 도움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온정 더하기

산불 피해 지역 아동에게 심리정서지원 키트 전달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조명환)이 지난 12일 강원·경북 산불 피해 지역 아동들을 위해 심리정서지원 키트를 전달했다.

키트는 산불 피해 지역 긴급구호사업 관련 후속 지원의 일환으로, 지역 내 아동들의 심리·정서적 트라우마 극복 및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아이들의 심리 치료를 위해 레고·클레이·컬러링북·보드게임 등 심리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물품으로 구성했다. 키트는 월드비전 강원·경북 지역본부를 통해 70여 명의 아이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심리정서지원 키트는 JYP엔터테인먼트와 한국 딜로이트 그룹의 기부로 제작되었다. 양사는 아이들이 대형 산불 발생으로 인해 겪은 신체적, 심리적 아픔에 공감하고 조금이나마 치유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눔에 동참했다. 특히 한국 딜로이트 그룹 임직원들은 산불 피해 지역 아동을 위해 직접 키트를 포장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작성해 마음을 전했다.

'코로나 이후 교회와 나라' 주제로 15차 세미나 개최

유관재 대표회장 "은혜와 도전 받아 목회의 전환점 되길 바라"

기침미래포럼

(사)기독교한국침례회 미래포럼(이사장 지덕 목사, 대표회장 유관재 목사, 이하 기침미래포럼)이 지난 6월 30일 강남중앙침례교회(최병락 목사)에서 '코로나 이후의 교회와 나라를 생각한다' 라는 주제로 15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코로나 엔데믹을 맞이하는 상황에 교회가 당면한 과제와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해결방안들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코로나 엔데믹을 맞이하는 상황에 교회가 당면한 과제와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해결방안들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강사로 나선 홍정길 목사(남서울은혜교회 원로)는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이 시대의 소망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목사는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잊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팬데믹 시대에 그냥 교회가 무너지고 문을 닫는 상황에 내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임을 선포해야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그는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유산을 남겨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인식시켰다"면서 "이제 여기에 하나를 더해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만들어가고 세워나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추가하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 오후 강의에서는 최병락 목사가 이사야 5:1~13 말씀을 토대로 미국 세미한교회 사역과 현재 담임하고 있는 강남중앙침례교회 사역에 대해 간증했다.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전도!

지역에 다니면서 꾸준히 씨 뿌리는 전도를 하던 중 가족세트전도 대표총재 박영수 목사를 알게 되었고 우리 교회에서 전도세미나를 열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세미나에 참석하여 성령체험으로 방언을 받은 분도 있었고 전도에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세미나를 마치고 박영수 목사와 함께 현장전도를 나가서 상가를 다니면서 바로 영접기도를 하고 그 자리에서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일사천리로 받아 적고 다음을 기약하며 나왔습니다.

요즘 개인정보보호라며 전화번호를 받아내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려운 시대에 성령님의 능력으로 1시간 여 만에 10명의 명단을 수첩에 적어서 그것으로 다음날 기도하며 재방문하고 주일에 예배참석을 권유하니 2명이 승낙하여 교회에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주일에 오면 주려고 성경책 2권과 장미꽃을 준비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주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도한다고 해도 한 영혼을 교회까지 오게 하는 일이 어려운 이 시대에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 안에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박영수 목사의 가족세트전도법이 유일한 해답인 것을 확신하며,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귀한 박영수 목사를 만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은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의성 믿음의교회 이경자 사모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대표총재
문화선교TV방송대표 박영수 목사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031)592-1691, 010)3730-2573

믿음으로 생각같은 곳으로 이억주 목사 // 한국교회언론회 공동대표, 대변인, 한국교회문화연구소 이사장, 대석교회

두려워하고 기도해야 한다

세상의 모든 두려운 일들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한순간에 수천, 수만, 더 많은 인명을 살생하는 전쟁무기가 되었든지, 혹시 자연재해라고 불리는 재앙일지라도 결국 인간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여도 역시 인간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한폐렴(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에 대하여 여러 설이 있으나 생화학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배양과정에서 유출되었다는 설도 있다. 두렵고 어리석은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앞으로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 어렵다.

당장 내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그러나 과도한 두려움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의학계에서 조언하는 대로 가능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은 피하고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이 자주 씻어야 한다. 공기 전염이 아니라 보균자의 침으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니 기침할 때 조심해야 하고, 음식을 먹을 때도 같은 접시를 사용하는 것을 금해야 할 것이다. 단체, 혹은 집단생활은 더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인류에게 재앙이 임하였던 역사는 여러 번 있었다. 1300년대 말에 유럽 인구의 1/4을 사망에 이르게 한 흑사병이 있었다. 1400년대 말에는 남미 원주민들 90% 이상이 사망한 천연두가 있었다.

현대는 전염병에 대한 경계와 방역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 사회, 국가, 국제 간의 협력으로 원만한 전염병을 극복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우한 폐렴 등 돌발 상황에 허둥대고 공포감을 갖게 되는 일은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다.

보이는 대로만이 아닌 신앙적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혹시 하나님을 대항하였던 국가나 개인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었을까? 최근 중국은 공산독재 강화와 세계 패권을 추구하는데, 그에 장애가 되는 존재들을 제거하는 일에 첫 번째 대상이 교회라고 한다.

2019년에 우한시가 중국의 종교정책 시범지로 지정되어 교회 탄압이 극심했다고 전한다. 우한시에서 48개 교회가 폐쇄되고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추방당했다. 중국 정부는 성경을 불태우고 기독교인 가정에 시진핑 사진을 걸도록 명령하고 성경을 변조하여 사회주의적 성경으로 변조 중에 있다고 한다. 또한 교회 감시용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수천 곳의 교회를 파괴하였다. 교회 지도자들은 체포되어 가혹한 처벌을 받고 교회는 무너지고 성도들은 흩어지니 하나님께서 이 악한 행위를 징계하신 것으로 본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치무라 겐조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하늘에 미국의 폭격기들의 출몰 때 일본인들이 두려움에 울부짖으며 방공호를 향하여 뛰어다닐 때 '당신들은 미군 폭격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들의 죄를 무서워하라' 고 한 말을 새겨보아야 한다.

우리들은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계 15~16장) 진노의 시작이 아닐까?'를 두려워해야 한다. 그리고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때다.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영원한 샘물

강산이 네 번 변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솟아나는
말씀의 샘물로 목을 축인다.

우물가의 여인 되어
인생이 무엇인지
묻고 또 물을 때
말씀의 생명수를 먹여주신 주님...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 생활
오직 순종을 배우는 그 시간의 의미...
지금을 살아가는 재녀 된 나에게도
바라시는 것은 오직 순종하는 모습뿐...

깊은 곳 생명의 원천 말씀인 우물
마실 때마다 나의 영혼 주께 감사하며
오늘도 신겨주신 평안의 복음 신발 신고
우물가의 여인 되어 주님을 만난다.

비늘 덮인 나의 눈 열어주시니
진리 말씀 구별하는 귀 있는 자 되어
생명수 나누는 즐거움 누리며
택함 받은 자의 길을 걷게 하신다.

요 3:14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신앙을 고백하다.

사 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난은 옛일 같고 현실은 거저 얻은 줄로 아는 게 인간이다. 6.25 이후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경제 10위권에 든 것이 거저 얻은 줄로 아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래서 박정희가 아니었어도 대한민국은 잘 살 수 있었다고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다. 컬럼버스의 달걀을 생각나게 하는 대목이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체제도 어느 날 하늘에서 저절로 뚝 떨어진 줄로 아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소홀히 하고 부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 민주주의나 시장 경제체제는 수많은 우리 선조들의 고난과 역경과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피눈물 속에서 피어난 꽃들이다.

그렇다면 소중하게 간직하고 발전시키는 일들이 후손들의 마땅한 의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는 지금 정신없이 돌아가는 변화 속에 몸을 담고 있다.

세계는 또 다시 냉전시대로 회귀하고 있다고 우려들이 많다. 변화에는 언제나 불편함이 따른다. 세계 군사력 2위의 러시아가 터무니없는 궤변을 앞세우고 군사력 22위(GFT의 평가)의 우크라이나를 2022년 2월 24일 침공했다.(참고 대한민국 군사력은 세계 6위)

군사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개전 수일 내로 우크라이나가 항복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군사 전문가들의 예측은 빗나가고 개전 5개월을 맞고 있다.

처음 전쟁이 시작됐을 때 우리나라 좌파들은 정치 6개월의 초보가 미련하게도 러시아를 자극하여 전쟁이 일어났다며 초보들은 그렇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비웃기도 했다. 그도 젤렌스키처럼 정치 초보라며.. 그러나 전문가들의 예측은 빗나갔고 우크라이나는 선전을 하고 러시아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강대국으로서 체면이 깎이고 말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무리 첨단 무기가 발달한 현대전이라 할지라도 정신력이 승리의 핵심 요소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러시아 해군의 자존심으로 불려온 모스크바함은 만재(滿載) 배수량 1만1500t으로 러시아 수상 함정 가운데 쿠즈네초프 항공모함과 키로프급 원자력 추진 순양함에 이은 넘버3 대형 함정이다. 대함미사일 16발을 비롯, 각종 대공, 대잠수함 미사일과 헬기 등으로 중무장하고 있다. 바다 위로 낮게 날아오는 적대함 미사일을 분당 4000발의 30mm 포탄으로 요격할 수 있는 AK-630 기관포 6문도 갖추고 있다. 천하무적이다. 이런 모스크바함을 우크라이나군이 격침 시켰다. 최첨단 초음속 무기가 아니라 1980년대 기술을 써서 개발한, 음속보다 느린 넵튠 미사일로 격침시킨 것이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깜짝 놀랐다. 아무리 첨단무기를 가졌어도 정신력 앞에서는 무기력해진다는 의미다. 오스트리아 비영리기관인 WVS가 2021년 한국인들에게 설문 조사를 했다. 전쟁이 나면 싸우겠나? 싸우겠다는 응답이 67.4%였다. 싸우지 않겠다가 32.6%였다.

싸우지 않겠다는 비율이 1981년엔 6.5%였는데, 2017년 이후 문 정권 출범 이후엔 32.6%까지 증가한 것이다. 이는 교육, 훈련, 기강이 엉망이라는 이유다. 군 복무기간이 18개월인데 정부는 북한의 눈치 보기에 열중하고 평화는 무기가 아니라 대화로 온다며 제대로 된 훈련 한 번 없이 군(軍) 제대를 하는 실정이 되었다. 이런 환경인데 강한 대적관(對敵觀)을 가지고 싸울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발발하자 자원해서 군 입대한 여자들이 3만 명도 넘었다. 그것도 최전선으로 배치되어 나라를 지키겠다고 기염을 토했고, 특등 스나이퍼(저격수)도 여자에게서 나왔다. 상대방은 핵으로 군사력을 강화하는 마당에 평화를 위해서는 무기를 버리고 대화를 해야만 한다고?

지난 정권에서는 우리는 무기를 버리고 대화로 하자고 했다. 그러나 바뀐 정권에서는 만일 북한의 침략 시 상응한 대응을 하라고 말하고 있다. 새 국방장관은 제대로 된 훈련을 시켜 나라를 지키겠다고 한다. 대통령은 영토와 국민을 지킬 의무가 있다. 김정은 답방을 위한 인신공양이라는 북한 어민 강제 북송이나, 이대준 씨 서해안 사살 사건에 침묵하는 것은 국민을 지키는 대통령의 자세가 아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사 37:20)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정의의 편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이다.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롬 12:19)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한

●연락처 : 편집국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02)2675-5183 FAX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ASSEMBLIES OF GOD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2학년도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 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 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2. 제출서류(각 1통)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③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ASSEMBLIES OF GOD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2학년도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 훈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목양일념.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 02)2678-5181 FAX:02-2632-0691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홈페이지 : www.ucts.org,
e-mail: ucts5181@naver.com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 과	과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Master of Ministry)	3학차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① 원서 교 부 : 수시 ② 원서교부처 :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③ 원 서 접 수 : 수시 ④ 합격자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 개별통보
4. 전형료 ① 전형료 : 30,000원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6.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 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홈페이지 www.ud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